

개구제한: 감별진단과 치료

김 지 락 /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구강내과학교실

치과 임상에서 “입이 벌어지지 않는다”는 증상은 비교적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문제로, 환자의 불편감이 크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개구제한은 단순한 증상으로 보일 수 있으나,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대부분은 턱관절 장애와 관련되어 나타나지만 염증성 질환, 외상, 감염, 종양성 병변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따라 의심해야 할 원인과 임상적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병력 청취와 단계적인 임상 검사가 필수적입니다. 임상에서는 최대 개구량의 측정 뿐 아니라, 개구 시 하악의 편위(deviation) 및 편향(deflection)의 양상, 관절음의 유무, 저작근 및 측두하악관절 부위의 촉진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특히 치과 치료 이후에 발생하는 개구제한은 환자로 하여금 의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, 이후 치료의 지속을 어렵게 만드는 임상적으로 난감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에 본 강의에서는 개구제한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할 때 임상가가 고려해야 할 평가 과정과 감별 진단의 핵심 원칙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. 또한 원인에 따른 치료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, 임상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치과 치료 후 발생하는 개구제한의 특징적인 임상 양상과 그 발생 기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.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검사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고자 하며, 이를 통해 개구제한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재현 가능한 임상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

학력 및 경력

- * 구강내과 전문의
- *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졸업
- *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, 박사
- *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강내과 수련
- *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치과학교실 조교수
- * 현,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구강내과학교실 부교수